

아연, 국내가격 약세지속 전망

세계경기 불투명으로 비철금속시세 약세 ... 중소기업 북한산 선호

국제 아연시세 약세에 힘입어 국내 아연시세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연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려아연의 1월중 출고가가 톤당 92만 2000원으로 12월중 출고가 93만원보다 8000원가량 떨어진 가운데 런던국제금속거래소(LME)의 시세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아연시세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에서의 아연현물시세는 8일오전 현재 톤당 1001.5달러에 형성돼 12월중 LME평균시세 1018.5달러에 비해 17달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자재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시작된 유가인상 움직임으로 각국의 경제전망이 흐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철금속류 전체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연시세도 타비철금속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약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LME에서의 아연 재고량이 66만2400톤으로 11월초의 70만2500톤에 비해 약 4만톤가량이 감소했으나 아연의 적정재고량 규모 40만~50만톤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규모인데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가 하강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아연시세가 지난 여름과 마찬가지로 톤당 1000달러를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선물전문가들의 예측대로 LME에서의 아연시세가 톤당 1000달러를 밑돌게 되면 고려아연의 아연출고가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측은 전월의 LME현물시세 평균치에다 적정이윤 및 제반경비를 추가시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달중 출고가는 12월중 LME현물시세 평균치 1018.5달러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외국산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중국산 아연은 중국수출기업들이 제시하는 가격과 국내 수요기업들이 요구하는 가격간의 차이가 커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연 취급기업들은 국내 수요기업들이 안정된 공급을 보장하는 고려아연으로부터 아연을 구매하는 대신 중국산 아연을 쓰기위해서는 LME현물시세에 비해 톤당 30~40달러가량이 저렴해야 하난 중국측은 자국내 가격상승을 이유로 LME시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기업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북한산의 경우 마진폭의 축소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 아연괴는 고려아연의 제품보다는 순도가 떨어지는대신 고려아연의 출고가보다는 2만~3만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95년1월부터 10월말까지 수입된 아연은 4만2900톤, 4800만달러로 94년 같은 기간의 5만9800톤, 5600만달러에 비해 물량면에서는 28.03%감소했으며 금액면에서는 14.3%감소했다.

<화학저널 1996/2/5>

